

디자인으로 보는 서울

2018 SEOUL DESIGN
at a Glance



디자인으로
보는 서울
2018 SEOUL DESIGN
at a Glance

디자인으로 보는 서울 2018

SEOUL DESIGN at a Glance

[서울디자인]

01. 시민 디자인교육, 창업의지를 키운다	04
02. 디자인 시설방문이 계속 증가한다	06
03. 서울 시민 64.8% “DDP 가봤다”	08
04. 범죄예방디자인 정책 ‘필요하다’	10
05. 사회문제해결·새활용 디자인 가장 필요	12

[서울유니버설디자인]

06.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 필요하다	14
07. 장애인과 영유아동반자, 가장 힘들다	16
08. 지하철도 유니버설디자인 시대	18
09. 외국인이 칭찬하는 서울의 유니버설디자인	20
10. 서울시민,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기대	22

[서울디자인키워드]

11. 2019년 서울디자인키워드는 ‘힐링공간’	24
----------------------------	----

연구기획

신윤재	서울디자인재단 전 기획본부 본부장
박삼철	서울디자인재단 기획본부 본부장
서혜영	서울디자인재단 사업기획팀 팀장
김민정	서울디자인재단 사업기획팀 선임
정종희	서울디자인재단 사업기획팀 선임
강지혜	서울디자인재단 전 시민디자인연구센터 선임

연구수행기관

대표기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공동수행기관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 / (주)마크로밀 엠브레인

연구진(가나다순)

책임연구원	민동권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공동) 책임연구원	박인석 한국예술종합학교 디자인과 교수
(부문) 책임연구원	김석균 (주)마크로밀 엠브레인 상무이사
연구원	유한나, 이수진, 정원희
연구보조원	박찬미, 배선미, 이주희, 이희진, 정태인

자문위원(가나다순)

디자인	강현주, 구교준, 김경아, 박해천, 변미리, 서우석, 연명흠, 이경돈, 이석우, 이훈길, 차강희
유니버설디자인	고영준, 김형철, 김호준, 안성준, 우창윤, 전미자

자료협조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담당자

01. 시민 디자인교육, 창업의지를 키운다

“서울시에는 622개의 시민 디자인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평생교육정책관,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디자인재단 등을 통하여 운영하는 디자인교육 프로그램은 ‘삶의 질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84.0%)’ 외에 ‘창업의지를 키우는 데도 영향을 주는 것(51.5%)’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 시민 디자인교육 운영기관

자치구 소재 평생학습관, 동 자치회관, 문화원 등 455개 기관이 운영 중인 디자인 관련 교육 프로그램은 약 622개이며, 그 중 아동청소년 특화 프로그램은 115개입니다.

| 시민 디자인 교육 운영기관, 서울시 및 산하기관

-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
- 서울시50플러스재단
- 서울디자인재단
- 서울문화재단
- 서울특별시 교육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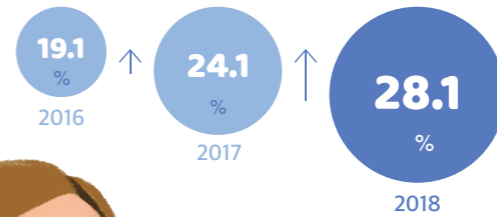


※ 출처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 서울시50플러스재단 홈페이지, 서울디자인재단 홈페이지,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서울청의감성교육 배움터 홈페이지

2. 3년 간 시민 디자인교육 강좌 수강 경험

최근 3년 동안 서울시민들의 디자인교육 강좌 수강 경험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시민들의 84%는 디자인교육이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했으며, 디자인교육이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51.5%가 그렇다고 대답해 단순 취미활동에 그치지 않고 자기계발의 일환으로 교육을 받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 지난 3년 간 디자인교육 강좌 수강 경험



| 디자인교육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디자인교육이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친다” 51.5%



3. 시민 디자인교육 수강처

서울시민들이 주로 디자인교육 강좌를 수강하는 곳은 1) 공공 문화센터, 2) 온라인 교육, 3) 사설 문화센터, 4) 학교, 5) 소그룹 활동, 6) 평생교육원 등의 순입니다. (일반시민, n=2500)

4. 시민 디자인교육 프로그램 분야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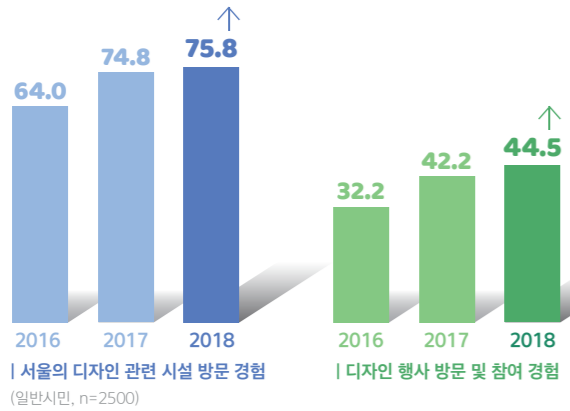
2018.11.30 기준 정보를 재구성 / 단위 : 개 (일반시민, n=2500)

02. 디자인 시설방문이 계속 증가한다

서울시 소재 80개의 박물관, 43개의 미술관, 6개의 전문디자인도서관 등을 방문하여 디자인을 경험하려는 시민들이 67.0%에 달했고, 3년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 3년 내 서울의 디자인 관련 시설 방문경험

디자인 관련시설(박물관, 전시관, 미술관, 복합문화전시관 등)의 방문 경험 및 디자인 행사 참여 경험은 3년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엔 디자인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이 129개나 있습니다”



● 서울 소재 디자인 관련 박물관 (총 80개)

- 광진구: 서울상상나라
 - 도봉구: 돌리 뮤지엄
 - 마포구: 한국영화박물관
 - 성동구: 청계천박물관
 -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의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 종로구립 고희동 미술자료관
 - 중구: 국립극장공연예술박물관, 지구촌 민속교육 박물관
- ※ 국공립만 기재

● 서울 소재 미술관 (총 4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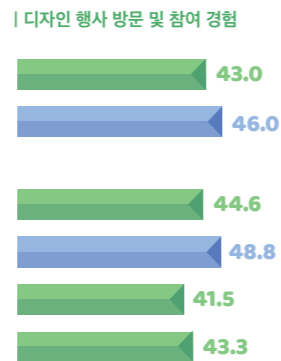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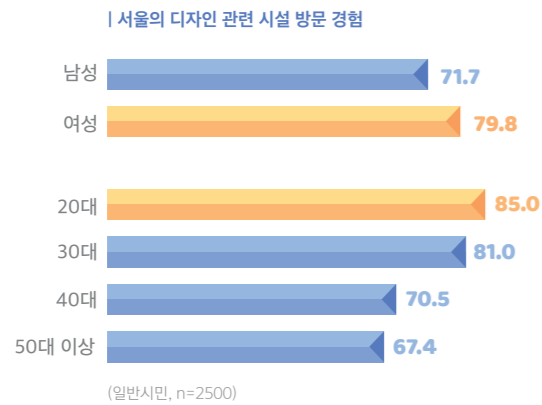
- 강서구: 경재정선미술관
 - 관악구: 서울대학교미술관 MoA
 - 서초구: 예술의 전당 한가람 디자인미술관
 - 성북구: 성북구립미술관
 - 송파구: 한미사진미술관
 - 용산구: 삼성미술관 Leeum
 -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세종미술관)
 - 중구: 국립현대미술관(덕수궁관), 서울특별시립미술관
- ※ 국공립만 기재

● 서울 소재 전문 디자인 도서관 (총 6개)

- 종로구: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KCDF 아카이브센터, 현대카드 디자인 라이브러리
- 중구: DDP 라이브러리, 서울디자인재단 패션라이브러리
- 성북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도서관(성곡도서관)
- 송파구: 한국방송공사 광고도서관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8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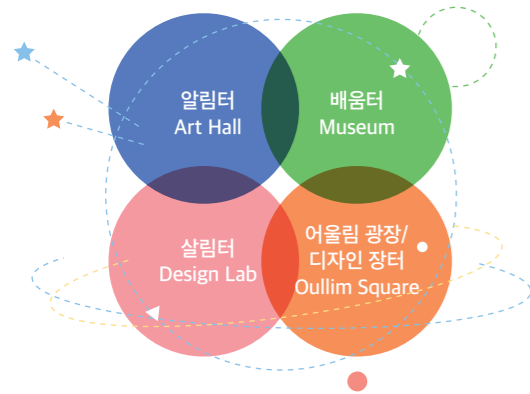
03. 서울 시민 64.8% "DDP 가봤다"

2014년 3월, 서울시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개관했습니다. 디자인 창조산업을 꽃 피우고, 국제적으로 교류하기 위한 아름다운 시설에는 시민의 64.8%가 방문 경험이 있었고, 그 중 81.3%는 연 1-3회 방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1.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시작과 끝이 없이 이어지는 45,133장의 외장패널, 기동없는 초대형 공간과 경계가 없는 3차원 비정형의 건축은 고정관념과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는 조형물입니다. 연 방문객 700만명, 다양한 문화 속 서울 시민과 세계인이 창의적 생각을 교류하고 참여하는 공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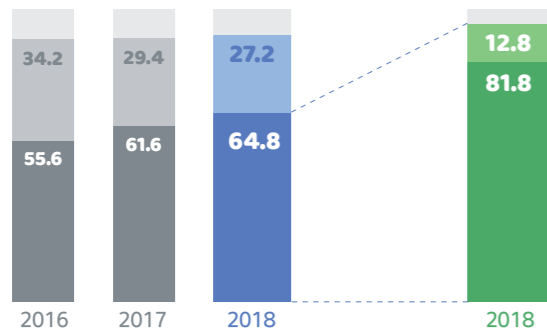
- **알림터 Art Hall:** 디자인 트렌드가 시작되고 문화를 교류하는 공간
패션쇼, 신제품 발표회, 세미나, 국제포럼, 제작발표회 등 다양한 행사 개최
- **배움터 Museum:** 창조적 디자인의 지평을 넓히는 배움의 장
디자인 박물관, 디자인 전시관, 상상·체험공간인 디자인 놀이터 등
- **살림터 Design Lab:** 디자인이 생활로 이어지고 산업이 되는 공간
랩(Lab)기반의 디자인 & 아트 습
- **어울림 광장/디자인 장터 Oullim Square:** 만남과 쇼핑, 휴식이 하나로 이어지는 열린 공간
24시간 열린 공간, 어울림 광장에는 만남·휴식·이벤트의 설렘이, 디자인 장터에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음

“ 많은 분들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를 추천합니다 ”



2.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방문 여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방문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8%는 방문 경험이 있고, 27.2%는 방문 경험은 없지만, 향후 방문 계획이 있었습니다. 방문객은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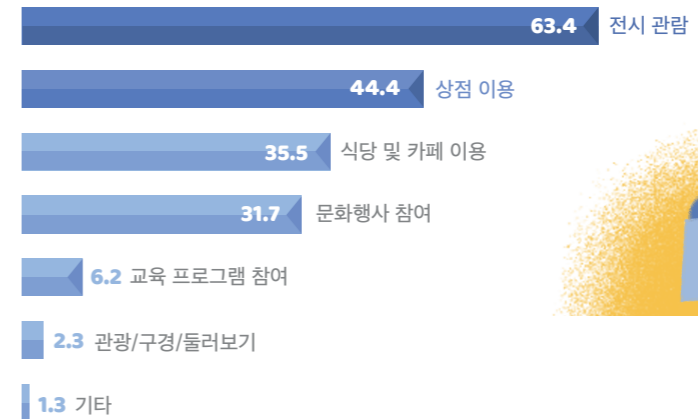
| 연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방문 횟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방문한 사람의 81.8%는 연 1-3회 방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문 평균 빈도수는 2.76회이며, 20대가 3.04회로, 도심생활권이 3.47회로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 연 1-3회 방문 ■ 방문 경험 있음
■ 연 4-6회 방문 ■ 경험 없지만 방문 계획 있음
단위 : % (일반시민, n=2500)

3.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방문 목적 및 차별적 특성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방문한 사람의 방문 목적은 '전시 관람'이 가장 높으며, '상점 이용', '식당 및 카페 이용', '문화행사 참여' 순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전시 관람' 목적으로 DDP를 방문하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상점 이용'이 높게 나타납니다.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방문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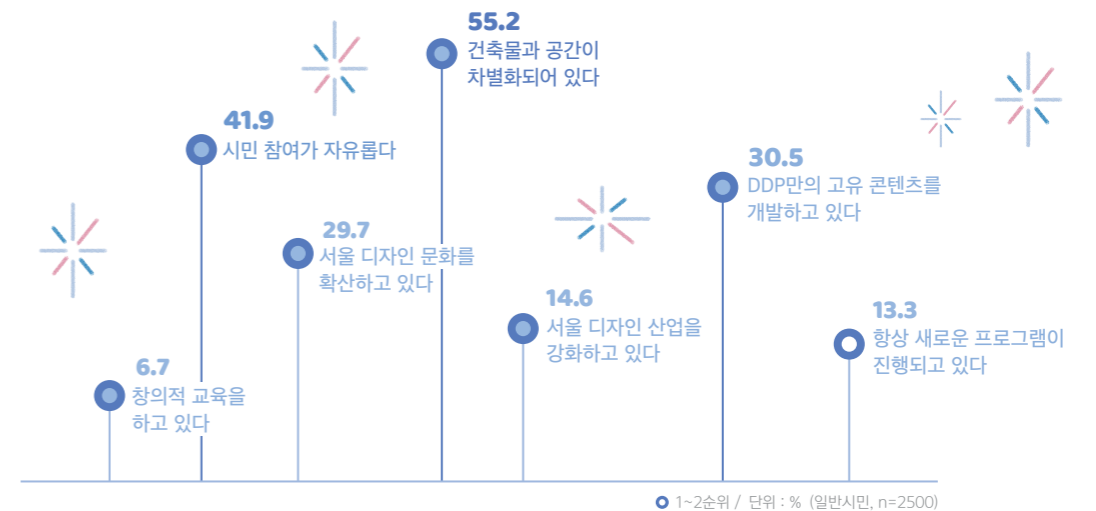


단위 : % (일반시민, n=2500)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차별적 특성으로는 '건축물과 공간이 차별화되어 있다', '시민 참여가 자유롭다', 'DDP만의 고유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등의 순으로 나타납니다.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차별적 특성



○ 1~2순위 / 단위 : % (일반시민, n=2500)

04. 범죄예방디자인 정책 '필요하다'

“디자인은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도시공간의 범죄예방에도 관계하여 삶의 질을 높입니다”

96%가 넘는 서울시민들이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의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서울의 도시 환경이 '디자인을 범죄예방에 잘 적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41.8%만이 '그렇다'고 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1. 범죄예방 디자인

범죄예방 디자인은 “도시 공간에 적절한 디자인을 도입하여 범죄 불안감과 발생범위를 줄이고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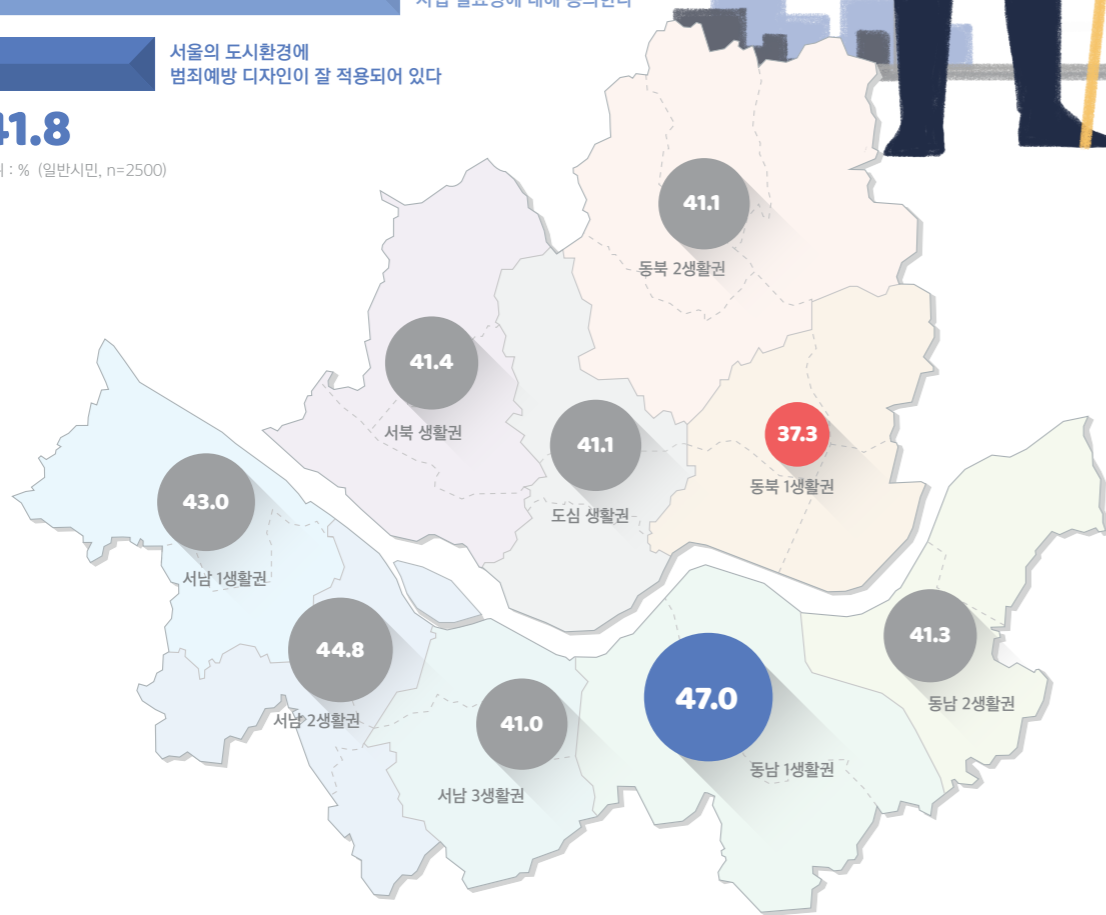
96.1



서울의 도시환경에 범죄예방 디자인이 잘 적용되어 있다

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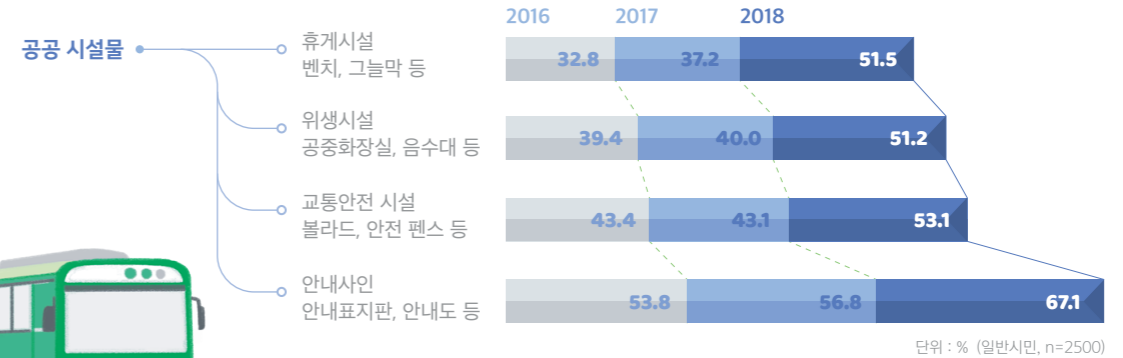
단위 : % (일반시민, n=2500)



| 9대 생활권별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 체감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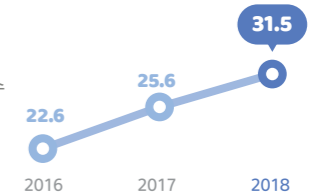
2. 공공 시설물 디자인

공공 시설물은 일반적으로 “공적 공간 Public Space 에 설치된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서울시의 공공 시설물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1) 안내사인, 2) 교통 안내 시설, 3) 휴게시설, 4) 위생시설 순으로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전년 대비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는 인식도 상승했습니다. 또한 연령대가 낮을 수록 서울시의 공공 시설물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는 인식도 높게 나타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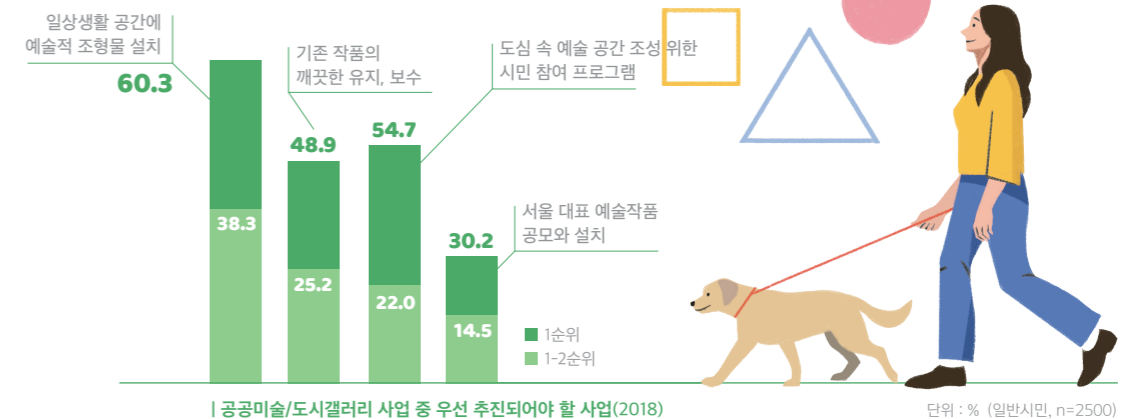
3. 공공 미술/도시 갤러리

도시에서의 공공 미술이란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예술을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도시 공간 속에 예술 작품을 설치하고 전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시의 공공 미술/도시갤러리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31.5%로 3년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의 공공미술/도시갤러리 사업에 대한 인지도

또한 공공미술/도시갤러리 사업 중 우선 추진되어야 할 사업을 조사한 결과 일상생활 공간에 예술적 조형물 설치, 기존 작품의 깨끗한 유지, 보수, 도심 속 예술 공간 조성 위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공공미술/도시갤러리 사업 중 우선 추진되어야 할 사업(2018)

05. 사회문제해결 · 새활용 디자인 가장 필요



서울디자인재단의 대표적인 사업은 DDP운영(58.2%), 서울패션위크 개최(44.0%) 등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중점을 두는 디자인 사업 중엔 패션봉제육성사업, DDP육성사업, 디자인기반사업,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개발사업, 공공미술프로젝트 등도 있습니다.

1. '서울 디자인' 수행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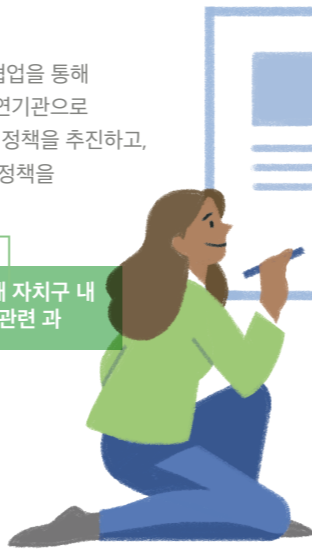
서울시 문화본부 내 디자인정책과를 중심으로 타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디자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으로 2008년 12월에 설립된 서울디자인재단을 통해 주요 디자인 정책을 추진하고,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내 디자인 관련 과에서 다양한 디자인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의 디자인 진흥 및 디자인 문화 확산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과 서울의 디자인 경쟁력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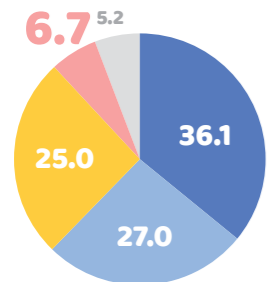
서울시 25개 자치구 내 디자인 관련 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디자인 국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서울 디자인' 중점 사업 (예산 규모에 따른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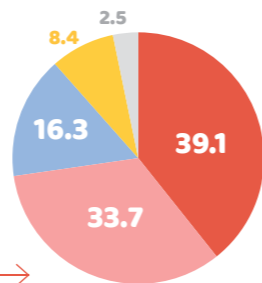
예산 규모에 따른 '서울 디자인'의 중점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자인정책과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개발
- 공공미술프로젝트 추진
-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조성 추진
- 문화예술분야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 기타(공공서비스 디자인산업 저변 확대, 서울 아트스테이션 전시 등)

단위 : % (일반시민, n=2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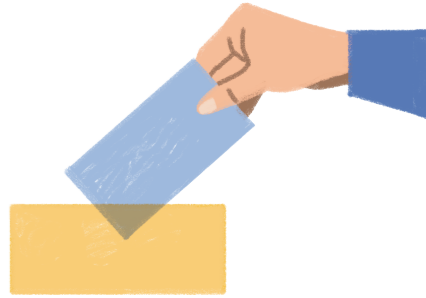
서울디자인재단

- 패션기반산업지원 및 지원시설운영
- DDP운영사업
- 디자인생태계조성
- 시민디자인사업
- 패션산업 글로벌마케팅 지원

단위 : % (일반시민, n=2500)

3. 디자인거버넌스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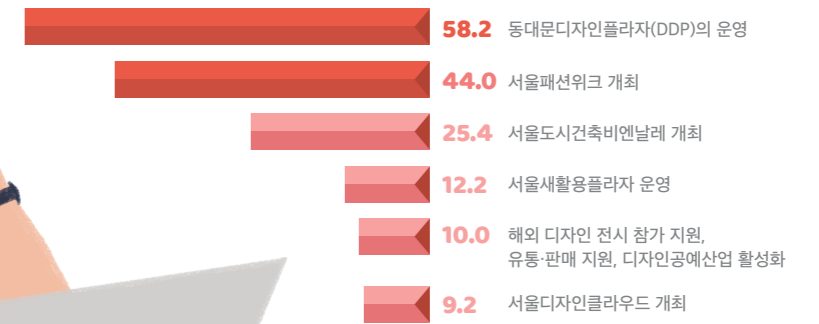
서울시의 디자인 정책에 대해 시민들이 제한할 수 있는 '디자인거버넌스' 제도가 있습니다.
<https://design.seoul.go.kr/sdg>



4. '서울 디자인' 사업 인지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서울디자인재단의 사업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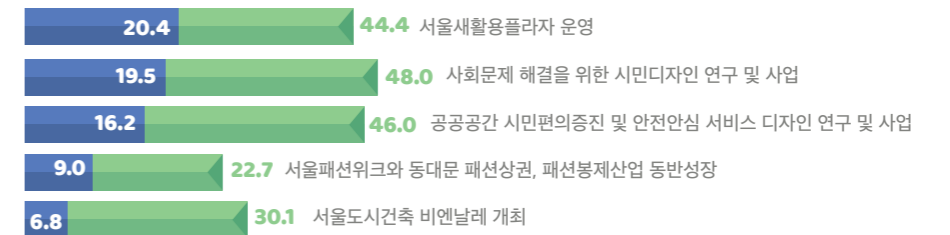
- 1)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운영, 2) 서울패션위크 개최, 3)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 등의 순으로 나타납니다.



단위 : % (일반시민, n=2500)

5. '서울 디자인' 사업 중요도

서울디자인재단의 디자인 정책/사업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1)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 2)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디자인 연구 및 사업, 3) 공공공간 시민편의증진 및 안전안심 서비스 디자인 연구 및 사업 등의 순으로 나타납니다.



■ 1순위 ■ 1~3순위 단위 : % (일반시민, n=2500)

06.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 필요하다

천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한 해 1,357만명(2016)의 외국인이 방문하는 국제도시 서울에는 고령자가 12.5%, 임산부와 영유아동반자가 8.8%이며, 3.9%는 장애인입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다양성을 포용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1. 유니버설디자인 이해관계자 그룹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동반자, 임산부, 외국인 등의 이해관계자 그룹과 함께 모든 사람들, 유니버설디자인은 성별, 연령, 국적, 장애 등으로 차별하지 않고 함께 배려하고 포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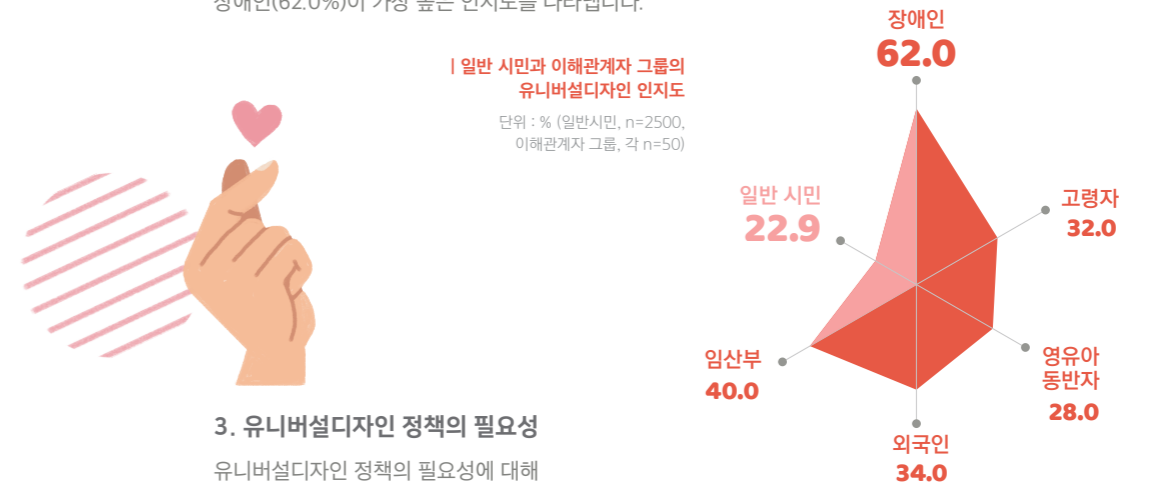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그룹 관련 통계 (2018년 10월 조사일 기준)

2. 유니버설디자인 인지도

일반 시민의 22.9%, 유니버설디자인 이해관계자 그룹의 39.2%가 유니버설디자인을 어느 정도 알거나 혹은 잘 안다고 답해 일반 시민들보다는 이해관계자 그룹의 인지도가 높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인지도는 최근 3년 꾸준히 높아졌으며, 유니버설디자인 이해관계자 그룹 중에서는 장애인(62.0%)이 가장 높은 인지도를 나타냅니다.



3.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필요성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 응답자의 절대 다수는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정책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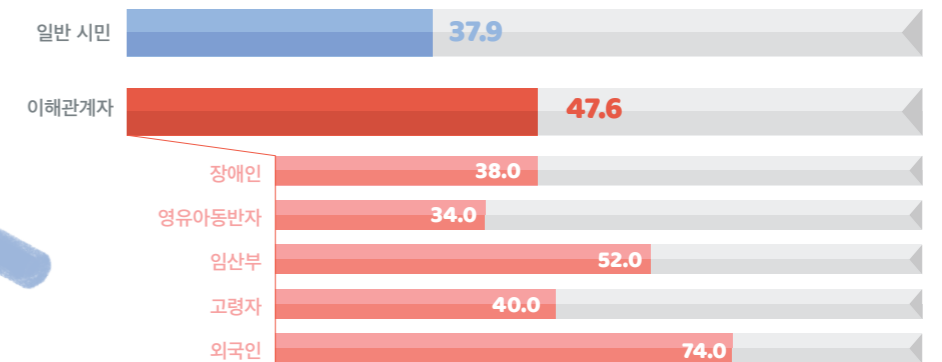


4.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정도

높은 정책 필요성에 비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정도에 대한 인식은 낮습니다.

일반시민의 37.9%, 유니버설디자인 이해관계자의 47.6%가 서울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정도에 대해 만족하였으며, 외국인이(74.0%) 가장 만족하였고 임산부 또한 52.0%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고령자(40%), 장애인(38.0%), 영유아동반자(34.0%)의 만족도는 낮습니다.

적용 정도에 대한 인식



단위 : % (일반시민, n=2500 | 이해관계자 그룹, 각 n=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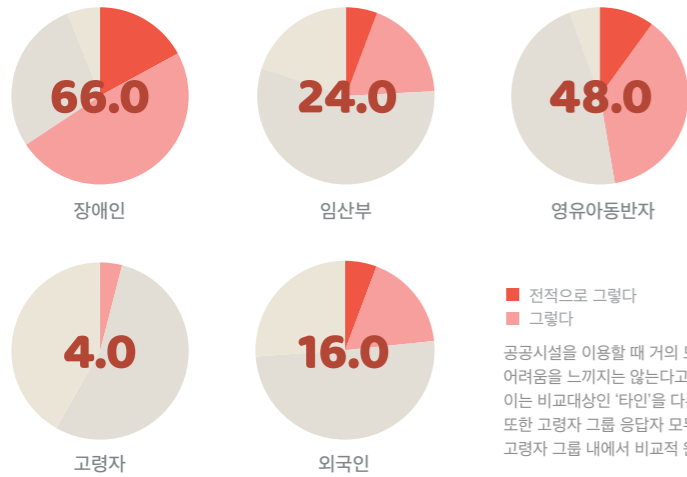
07. 장애인과 영유아동반자, 가장 힘들다

“어린이와 고령자는 물론 외국인도 배려해야 합니다”

공공 시설물의 디자인 만족도는 ‘야간경관(92.2%)’, ‘지하철 안내사인(82.6%)’, ‘사설안내 표지판(80.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66.0%의 장애인과 48.0%의 영유아동반자가 아직도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 공공시설 이용 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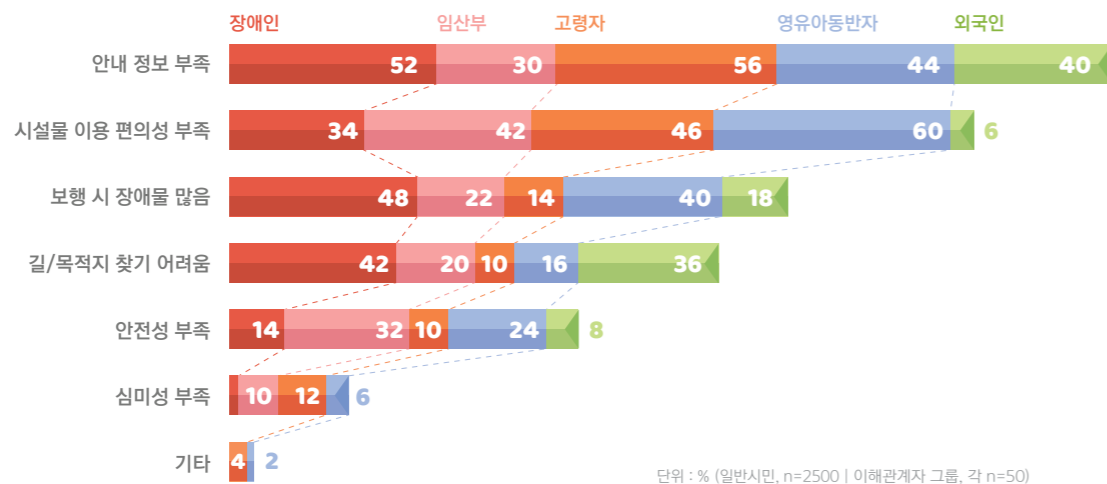


■ 전적으로 그렇다
■ 그렇다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거의 모든 고령자들(96.0%)이 타인에 비해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비교대상인 '타인'을 다른 고령자들로 설정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 그룹 응답자 모두 65세 이상 69세 이하에 속해 고령자 그룹 내에서 비교적 원활한 활동이 가능한 대상자들이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단위 : % (일반시민, n=2500 | 이해관계자 그룹, 각 n=50)

| 공공시설 이용 시 어려움을 느끼는 요인



단위 : % (일반시민, n=2500 | 이해관계자 그룹, 각 n=50)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건물 내 혹은 지하철역 등의 쓰레기통을 보면 분리수거용과 일반용이 있는데, 시각장애인은 이것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관성 있게 왼쪽은 분리수거, 오른쪽은 일반 이런 식으로 정해놓으면 사용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시각장애인 A -

“청각장애인을 위한 지하철역이나 전차 내부의 긴급 안내 공지 자막 설치가 시급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청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취약한 부분은 정보 접근성입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줘야 합니다.”
- 청각장애인 A -

“현장의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모니터링하고 개발하는 노력과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고령자 A -

“선진화는 개인소득 증대보다 시민의식의 개선이 우선입니다. 그늘진 곳과 불편한 우리 이웃에게 온정이 미치고 더불어 사는 사회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 고령자 B -

“아이 엄마이다 보니 유모차를 많이 이용하는데, 유모차를 이용하면서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공감하게 되었어요. 인도부터 건물까지, 화장실이며 대중교통 등이요.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도 신경써주시면 좋겠어요.”
- 영유아동반자 A -



“도로평탄화 작업은 좋은데 그 평탄화 작업으로 인해 인도가 불편해진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는 유모차, 휠체어도 다닐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영유아동반자 B -

“이 설문조사를 다른 나라의 조사들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파악하면 좋겠어요. 서울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도시의 정책으로부터 배우고 다른 도시들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어요.”
- 외국인 A -

08. 지하철도 유니버설디자인 시대

“지하철 1~8호선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휠체어리프트 등도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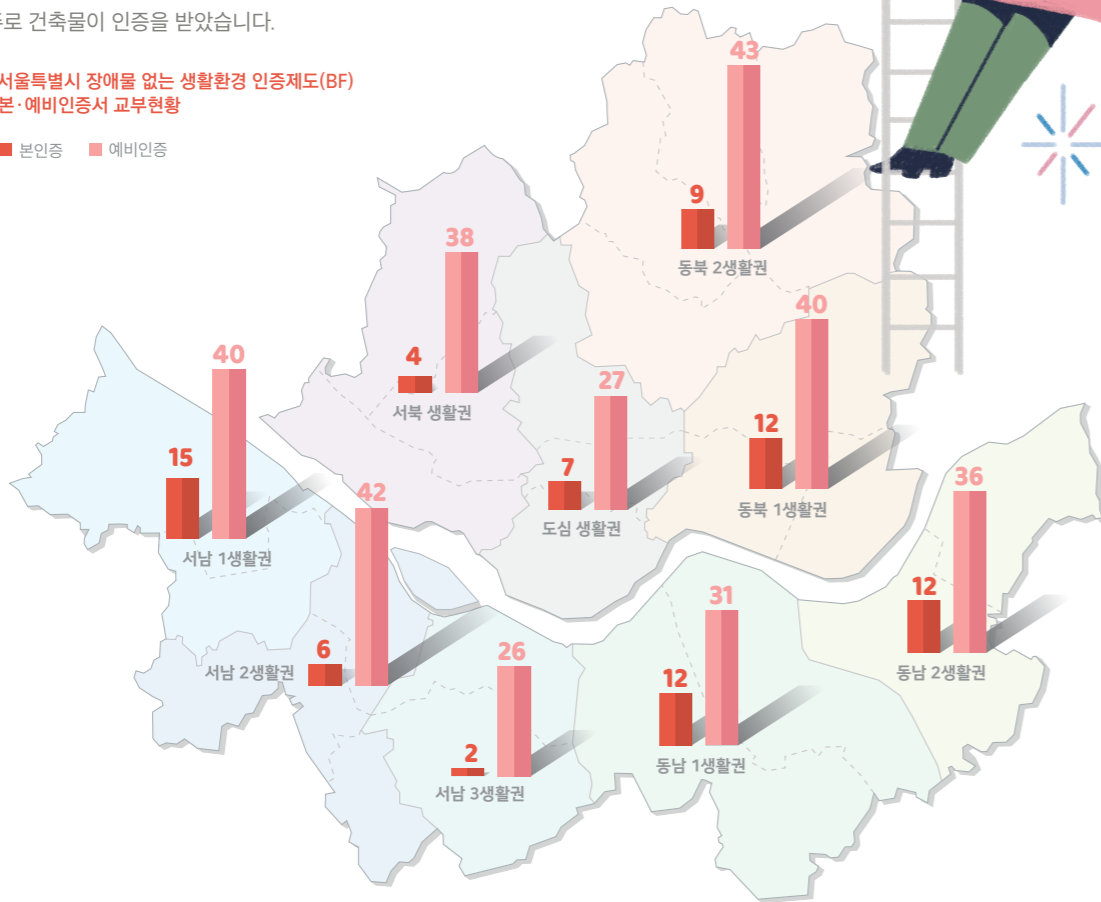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를 통해 장애인 등의 물리적 시설에 대한 이용과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환경도 유니버설디자인의 관리대상입니다.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F) 건축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를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등의 물리적 시설에 대한 이용과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편의를 증진합니다. 2008년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서울시의 BF인증 교부현황은 총 402건이며, 공공부문 인증실적은 335건(83.3%), 민간부문은 67건(16.7%)입니다. 인증대상별 인증실적은 건축물 382건(95.0%), 여객시설 14건(3.5%), 공원 4건, 도로 1건, 도시(구역) 1건 순으로 주로 건축물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 서울특별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F) 본·예비인증서 교부현황

■ 본인증 ■ 예비인증



2.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편의시설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은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로 구분되며 서울시 곳곳에 존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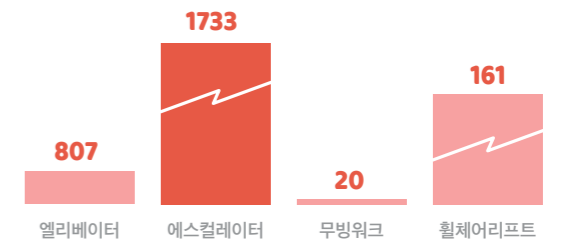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 매개시설: 주출입구 등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것
- 내부시설: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 위생시설: 화장실, 욕실, 샤워실, 탈의실
- 안내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 기타시설: 객실·침실·관람석·열람석, 매표소·판매기를 의미

서울교통공사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외국인 등을 위해 지하철의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1~8호선 편의시설 현황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휠체어리프트
1 호선	36	31	-	9
2 호선	147	219	-	12
3 호선	85	194	2	6
4 호선	76	112	-	15
5 호선	140	313	2	27
6 호선	109	299	12	34
7 호선	123	368	4	43
7 호선(연장선)	37	119	-	-
8 호선	52	78	-	14



※ 출처 :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http://data.seoul.go.kr), 2017.12.15 기준 / 단위 : 개

※ 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http://www.koddi.or.kr),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홈페이지(http://bf.koddi.or.kr), 2018.8.31 기준
※ 자료조사기간은 2008년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임, 단위 : 건수

09. 외국인이 칭찬하는 서울의 유니버설디자인

외국인 응답자 중 82%가 타 국가의 도시와 비교하여 서울시 공공시설이 '더 낫다'며 만족감을 표현하였습니다. 향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는 환경개선사업 중 대중교통시설, 의식개선사업 중 홍보캠페인 사업,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중에는 공공시설제품 개발을 추천했습니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4원칙

● 편리성 :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연령, 지식, 능력 등에 관계없이 조작이나 이용이 쉽다.
- 필요한 정보를 직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적절한 곳에서 제공된다.
-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사용하여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다.

● 안전성 :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 사용자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미리 안내한다.
- 조작이나 이용에 위험요소가 없으며 부주의한 실수에도 안전하다.
- 유해한 환경을 예방하고 개선한다.

● 쾌적성 :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

-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 청결하고 정돈되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제공한다.
- 시각, 청각, 촉각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호감을 느낄 수 있다.

● 이용선택권 :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사용자의 자세, 동작, 행동 패턴 등의 차이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제공한다.
- 수단이나 사용방법이 다양하여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 출처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2. 공공환경

● 가로 : 넓은 도로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차도와 보도로 구분

- 보도 : 보행안전구역, 차량진입구역, 공개공지, 자전거도로, 시설물구역
- 차도 : 국지도로, 횡단보도, 속도저감방안

● 공원/광장 : 시민의 휴양 등을 위하여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넓은 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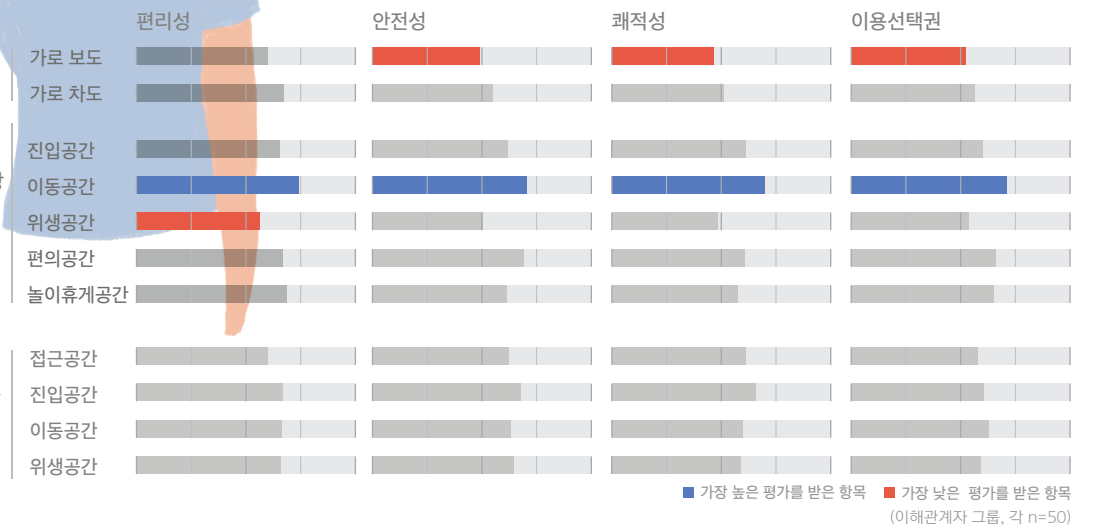
- 진입공간 : 접근로, 주출입구, 주차장
- 이동공간 : 산책로
- 위생공간 : 화장실, 영유아동반자 위생시설
- 편의공간 : 관리사무소, 안내시설, 매표시설, 반려동물보호시설, 금연구역
- 놀이 휴게공간 : 휴게구역, 놀이터

“80% 이상의 외국인이 유니버설디자인의 4원칙 측면에서 서울의 공공시설에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 공공건축물 : 공공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및 유사단체가 소유한 건물
- 접근공간 : 부지출입구, 보행접근로, 주차장
- 진입공간 : 주출입구, 로비
- 이동공간 : 복도, 실내출입문, 경사로,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보 및 피난시설

이해관계자 그룹에게 4원칙에 대한 설명을 읽은 뒤 서울의 가로, 공원·광장, 공공건축물을 유니버설디자인의 4원칙에 따라 평가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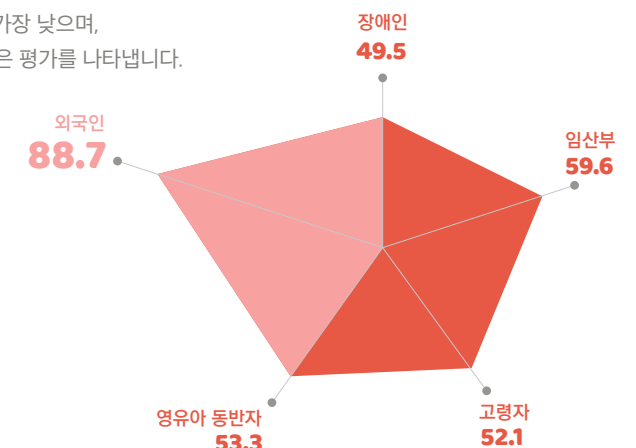
[서울시 공공시설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3. 공공환경에 관한 그룹별 평가 종합 결과

공공환경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정도에 대해 장애인의 평가가 49.5%로 가장 낮으며, 외국인이 88.7%로 가장 높은 평가를 나타냅니다.

단위 : % (일반시민, n=2500
이해관계자 그룹, 각 n=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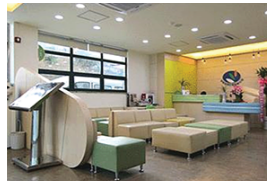


10. 서울시민,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기대

“유니버설디자인이 앞선 도시가 선진도시다.” 서울시의 믿음은 컨설팅 사업,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사업, 교육사업,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시민들은 컨설팅 사업(95.2%)과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사업(94.0%)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추천하였습니다.

1.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 복지관, 경로당, 요양시설, 도서관 등 새로 짓는 공공건축물이나 취약한 환경의 복지시설에 가이드라인에 맞게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
-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시 전문가 자문을 받거나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모니터링 시행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한 안내데스크 설치



직관적인 인지가 가능한 디자인 적용



안전을 고려한 놀이공간 조성

2.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공간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실제로 적용하여 설치
- 편리한 길 찾기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함



고원식 횡단보도, 보도 평탄화 및 유효폭 확대 등



경사로 확폭(1.8m → 3.5m), 여닫이문 → 자동문 등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한 인성, 창의 교육

3.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교육을 진행
- 시, 자치구, 사업소 등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체험형 교육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을 알리고 인식을 개선함



“컨설팅, 교육은 물론, 미래 연구까지...”

4.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및 세미나

- 전시회, 세미나, 박람회를 열어 유니버설디자인의 가치와 국내외 사례를 공유함
- 유니버설디자인을 직접 체험하는 공간을 조성함



유니버설디자인 세미나 및 전시회

5.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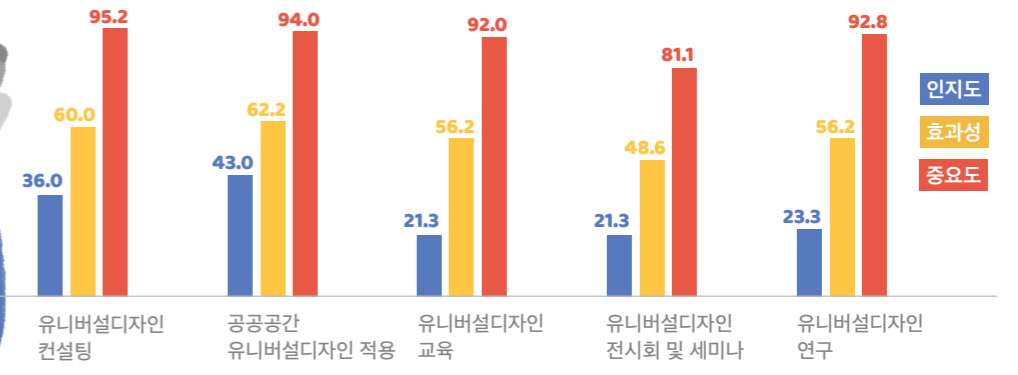
- 유니버설디자인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수립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례와 가이드, 온라인 학습 등을 할 수 있는 소통형 종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
- 유니버설디자인 시공모니터링과 사인시스템을 연구
-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과제를 개발하고 수행할 수 있는 연구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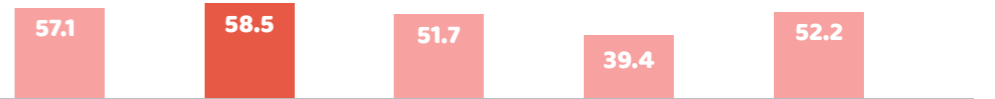
교통약자를 위해 서울지하철 환승, 이동을 위한 지도 개발(2017)

6. 서울시 UD 정책 및 사업 종합 결론

| 각 정책 별 인지도, 효과성, 중요도



| 각 정책의 상대적인 효과성



단위 : % (이해관계자 그룹, 각 n=50)

실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사업의 인지도가 가장 높습니다. 또한 중요도를 가중치로 각 정책의 상대적인 효과성(즉, 효과성 x 중요도)을 조사한 결과, 1)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2)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3)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4)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5)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및 세미나 사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책 전체의 효과성에 대한 각각의 기여 정도를 보여줍니다.

11. 2019년 서울디자인키워드는 '힐링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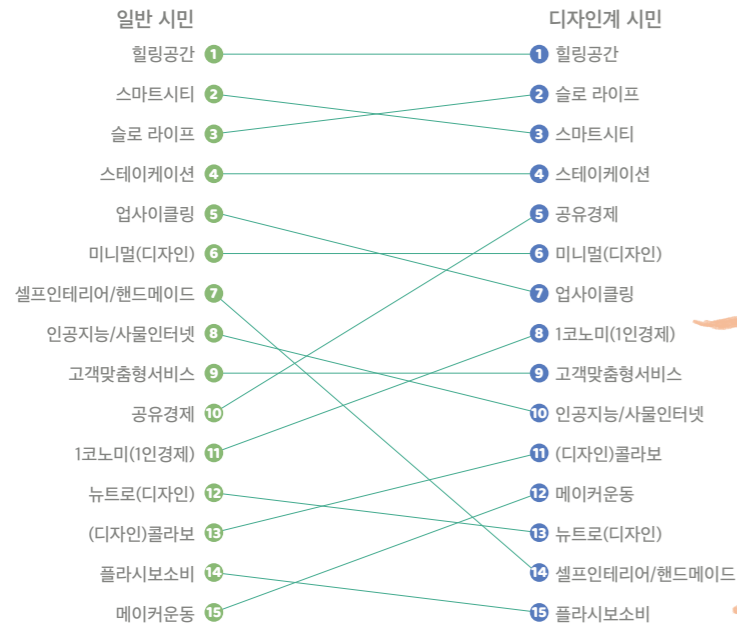
“연령대가 높을수록 '힐링공간',
연령대가 낮을수록 '1코노미'를
선호합니다”

'서울디자인키워드'는 서울의 현재와 미래를 설명할 수 있는 핵심 주제어를 제시하여, 시민이 원하는 디자인 정책수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사한 것입니다.

1. 2019년 서울디자인키워드

2018년 11월 이내에 발간된 국내외 대표적인 트렌드 문헌들(2018~2019)을 검토하여 키워드를 추출하고, 소셜 데이터 분석, 내부 논의 및 전문가 자문 의견을 수렴하여 키워드 간의 위계구조를 파악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15개 예비 키워드 목록을 도출하고, 일반 시민과 디자인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맥스딤(Max-Diff) 방식을 통해 중요도를 조사하였습니다.

| 일반 시민과 디자인계 시민의 2019 서울디자인 키워드 중요도 비교



일반 시민 대상 조사결과, 여성의 경우 '힐링 공간', '슬로라이프', '스테이케이션' 등의 키워드에 남성은 '힐링 공간', '스마트시티', '스테이케이션',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에 더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령대가 높을수록 '힐링 공간', 연령대가 낮을수록 '1코노미'를 선호합니다.

| 일반 시민의 2019 서울디자인키워드 연령별 중요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힐링공간	1	1	1	1
스마트시티	2	3	4	2
슬로라이프	5	2	2	3
스테이케이션	3	5	5	5
업사이클링	8	4	3	4
미니멀(디자인)	6	6	6	6
셀프인테리어/핸드메이드	7	7	8	8
인공지능/사물인터넷	9	9	10	7
고객맞춤형서비스	10	9	9	9
공유경제	12	10	7	10
1코노미(1인경제)	4	8	11	12
뉴트로(디자인)	11	11	12	11
(디자인)클라보	13	12	13	13
플라시보소비	14	13	14	15
메이커운동	14	14	15	14

* 순위별 그래프

일반 시민과 디자인계 시민의 결과를 종합해 최종키워드를 선정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비해 '슬로 라이프', '스테이케이션', '업사이클링' 등의 순위가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2018년과 2019년 서울디자인키워드 변화

2018	2019	
1 힐링공간	1 힐링공간	●
2 스마트시티	2 슬로 라이프	▲3
3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 (IoT)	3 스마트시티	▼1
4 공유시스템	4 스테이케이션	▲4
5 슬로라이프	5 업사이클링	▲1
6 업사이클링	6 미니멀(디자인)	▲1
7 미니멀(디자인)	7 공유경제	▼3
8 스테이케이션	8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 (IoT)	▼5
9 고객맞춤형서비스	9 고객맞춤형서비스	●
10 디자인 클라보	10 1코노미(1인 경제)	◆

▲ 상승 ▼ 하락 ● 동일 ◆ 신규





발행일 2019년 1월 31일
발행처 (재)서울디자인재단, 사업기획팀
03098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83 서울디자인지원센터 7, 8, 9층
www.seouldesign.or.kr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정태인

*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 및 재편집, 출판, 상업적 활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활용 시 재단과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재)서울디자인재단
ISBN 979-11-88219-40-7
비매품

Seoul Design
Foundation

I · SEÒUL · U

비매품



9 791188 219407
ISBN 979-11-88219-40-7